

함평군, 먹거리 협의체 발대식 개최

민간위원 9명·행정위원 10명 총 19명 구성
생산에서 소비까지...유통체계 청사진 그려



함평군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도모를 위한 '함평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서 주목된다. 26일 군에 따르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이날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의 군수를 비롯한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먹거리 종합계획'은 식품의 생산-가공-유

통-소비 등 전 단계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군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식품의 기획·생산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복지에 이르기까지 지역 먹거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함평군 먹거리 협의체'는 생산, 가공, 소비 등 분야별 민간위원 9명과 기관단체 및 행정위원 10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향후 함평군 먹거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함평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은 군민 건강증진을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먹거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김광준기자



무안군, 제14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 '성료'

요리출품작 외식업체 연계 음식관광화

무안군은 무안연꽃축제 기간인 23일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주무대에서 '무안의 맛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4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가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요리경연 결과 ▲대상은 이수미 씨(무안군 망운면)의 '나지떡갈비찜' ▲최우수상은 장명하 씨(전라북도 남원시)의 '무안 연근 함박스테이크&연잎 티라미수' 임현진 씨(무안군 삼향읍)의 '무안을 담은 토마토 그라탕'이며, 우수상 2팀, 장려상 14팀 등 19팀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저마다의 개성으로 로컬푸드 메

뉴 1종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한국생활개선무안군연합회 정현숙 회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참가자 19팀의 현장 라이브 요리경연, 관광객 레크리에이션, 참가자 서비스(양파김치·화채), 맛 시식(고구마 조청·가래떡·고구마 음료), 경연대회 요리 시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관계자 접종 확인, 열사량과 거리두기,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으며, 시식에 사용된 모든 일회용품과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친환경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에도 앞장섰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천일염 10kg 포장' 사용 추진

2023년 천일염 10kg 포장 유통·농협관계자 간담회 개최

신안군은 생활방식 및 식문화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하여 25일 관내 천일염 유통 농협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10kg 포장 정착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협관계자는 "생산자들이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 자세가 되어 있으니 군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핵가족화로 인한 운반 및 저장 불편 등으로 소포장은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의성 제고, 유통인의 비용절감 등 상생의 효과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천일염 10kg 포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안천일염은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네랄과 철분, 칼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명품 천일염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안군에서는 농협,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회의 및 교육을 통해 비교우위 자원인 신안천일염을 타 지역 소금과 차별화시킴으로써 신안천일염을 세계 3대 명품 소금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청소년동아리 재능기부 활동 펼쳐

여름방학 맞은 초등학생 대상 영광고 19명 직접 기획 및 준비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관내 청소년 동아리 소속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정심이면체로 하는 불링, 레진으로 정복도형 열쇠고리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등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영광고등학교 소속 피타고라스(수학) 및 요록(요리) 동아리 청소년 19명이 직접 기획 및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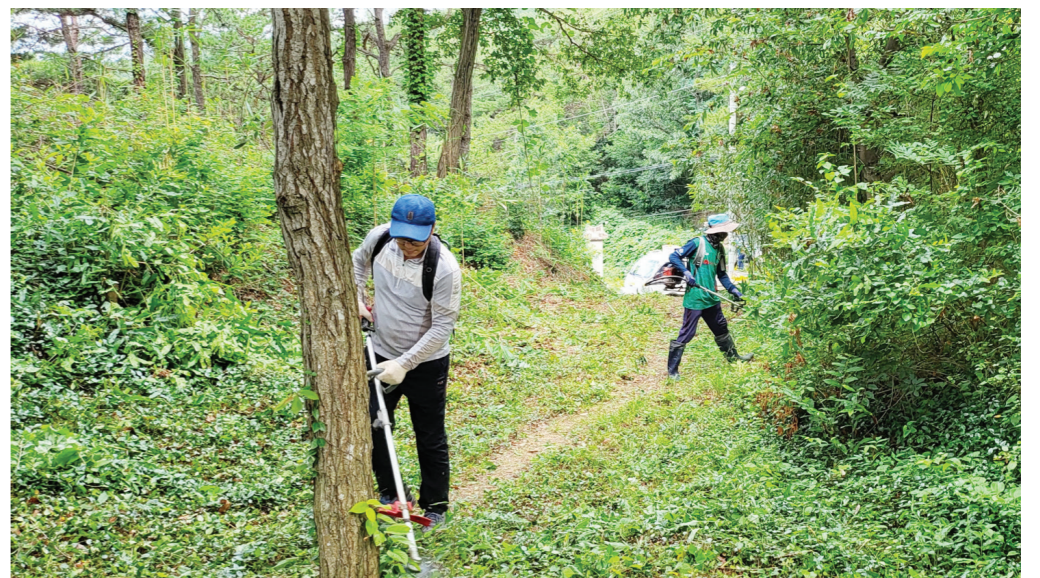
재능 기부활동에 참여한 영광고등학교 2학년 전수민 학생은 "자신의 재능이 필요한 곳에 기부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동생같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고 뜻깊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청소년들의 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과 사회성 함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학교 및 단체 소속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신북면 등산로 및 임도변 풀베기 작업 실시

신북면 자율방범대 대원 30여명 참여

영암군 신북면에서는 여름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 및 임도변을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3일 까지 이틀간 일제 정비하였다.

이번 작업에는 신북면 자율방범대(대장 이상수) 대원 30여명이 참여해 등산로 4개 구간(5.9km)과 명동리, 용산리, 장산리 등 6개 구간

임도변(11km)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풀베기는 물론 통행에 방해되는 잡목과 지장물 제거 및 쓰레기 수거도 병행하였다. 신북면 관계자는 "이번 작업에 참여한 신북 자율방범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안전한 산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